

ISSN 1599-7863

박물관사람들

2015년 가을 ■ 51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남계원 칠층석탑,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사람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2015년 가을 ■ 51호 Contents

기획/고려시대 석탑	풍운의 역사를 비껴간 경천사지 십층석탑 비밀의 정원 고려 불탑 입문기	4 8 11
문화칼럼	아소카 왕은 정말 아육왕상을 만들었을까?	14
전시실 산책	시선에 반하고 숨씨에 취하다	18
박물관 탐방	대가야인의 숨결	21
회원마당	三物三色	24
학술상	연하도 철기문화의 성립과 전개과정	27
박물관 소식	고대불교조각대전	32
숨은 전시	나노 상자의 비밀	33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국립중앙박물관회는	34

풍운의 역사를 비껴간 경천사지 십층석탑

풍운의 근현대사를
겪으며 그 상처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오늘날까지
버텨온 경천사지
십층석탑을 볼 때마다
참으로 다행함과 대견함을
감출 수 없다.

국립중앙박물관 1층 중앙 통로 맨 끝에는 화려하고도 거대한 고려시대 석탑 하나가 서 있다. 바로 개성 경천사지 십층석탑(국보 제86호)이다. 경천사는 현재 북한 땅인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부소산에 있던 사찰인데 고려가 원나라의 지배에 있던 충목왕 4년(1348)에 친원파 고려 귀족들이 이 사찰에 원나라 황실과 고려왕조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며 고려 제일의 석탑을 세웠다.

이 석탑은 삼국시대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 온 전통 석탑의 틀을 완전히 탈피하였다. 3단으로 된 기단(基壇)은 사면 돌출형 평면으로 설계되었고 그 위에 올려진 10층의 높은 탑신(塔身) 역시 3층까지는 기단과 같은 사면 돌출형으로 연속되다가, 3층 지붕에서 겹지붕으로 약센트를 주고 4층 이상부터 10층까지는 간결한 정사각형의 지붕으로 연결하는 멋진 수직 구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단과 탑신에는 화려한 조각이 가득 차 있는데, 동물, 화초, 승려, 전각, 구름 등이 어떤 스토리를 전개하는 듯 가득 새겨져, 어떤 이들은 『서유기』의 내용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탑신부에는 각층마다 당시의 섬세한 목조 법당 건축을 연상케 하는 난간, 지붕, 기둥들이 입체적 공간을 연출하고 그 안팎에는 법회를 연상케 하는 불보살상 등 풍부한 조각들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다. 또한 1층 탑신 하단부에는 이 탑을 고려 충목왕 4년(1348)에 세웠다는 내력이 새겨져 있어 탑이 조성된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다. 탑에 기록된 명문에 의하면 경천사는 ‘대화엄사찰’이라 하였다. 즉 화엄사상을 중시하는 대사찰이란 의미이다. 화엄사상을 대표하는 불경은 바로 화엄경이다. 그런데 이 화엄경을 읽어보면 모든 가르침의 절목이 ‘십+’이란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십행+行, 십지+地, 십주+住, 십회향+回向 등이다. 이처럼 ‘십’이란 숫자를 화엄경에서는 완전한 숫자로 여겼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석탑이 ‘십층석탑’이란 아주 특수한 층수를 지닌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실로 잠재되어 있던 고려시대 석조예술의 기량을 한순간에 분출한 듯 탄성을 감출 수 없는 이 석탑은 고려시대를 대표 하는 석조 건축물인 동시에 거대한 조각품이다. 우리나라 석 탑의 일반적 재료가 화강암인 데 비하여 매우 귀한 대리석으 로 만들어졌다는 점도 특이한데 또한 대리석이 아니고는 이 렇듯 섬세하고 화려한 조각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전체적 인 균형과 세부적인 조각 수법이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태 로 눈길을 끌며, 옥개석의 처마가 목조건축의 구조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 당시의 건축양식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이러한 양식은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러 원각사지 십층 석탑(국보 제2호)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석탑은 세워진 지 50년도 안 되어 고려왕조가 멸 망하고 유학을 중시한 조선왕조가 세워지면서 불교를 배척 하는 분위기 속에서 점점 관심에서 멀어졌다. 날이 갈수록 몰락해가는 경천사의 운명과 함께 결국 조선왕조가 다할 무 렵에는 폐허 속에 쓸쓸하게 방치되어 있었다. 이후 일제 강 점의 책략이 시작될 무렵인 1904년, 당시 일본 궁내성 대신 이었던 다나카 미쓰아키田中光顯은 일본인들이 조사한 『한국 건축조사보고』라는 책에서 경천사 십층석탑의 모습을 처음 보았다. 그는 13.5미터나 되는 규모임에도 위압감보다는 상 승과 안정의 느낌을 동시에 주는, 균형감이 돋보이는 아름 다움에 반했다. 그래서 그 석탑을 자신의 집 정원에 갖다 놓 기로 결심했다.

다나카 미쓰아키는 우리나라 문화재 약탈자 가운데 가장 악 랄한 사람으로 꼽힌다. 그는 청년 시절부터 서화를 비롯하여 고미술품을 모으는 것이 취미였다. 1898년 56세의 나이로 일본 궁내성의 궁내 대신이 되어 1909년까지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당시 궁내성은 도쿄 제실帝室 박물관(현재 도쿄국 립박물관)을 관할하고 있었으므로 서화, 고미술품 등에 전문

1904년 당시의 경천사지 십층석탑

지식을 갖고 있던 그는 옛것을 좋아하는 자신의 취미를 위해 지위를 이용해 권력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1907년 1월 20일 그는 조선을 찾았다. 1월 24일에 있을 대 한제국 황태자(순종)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사절단으로 온 것이다. 조선에 머문 날짜는 10여 일. 그는 경천사 십층 석탑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가져가려고 호시 탐탐 기회를 엿보았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07년 1월 31 일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는 “고종 황제가 기념으로 나에게 하사했다. 개성 근처의 절터에 있는 대리석탑을 도 교의 우리 집 정원으로 운반하라.”라는 엄청난 사기 행각을 구상, 실천에 옮기게 된다. 얼마 후인 1907년 3월 한 무리의 일본인들이 다나카의 느닷없는 명령을 앞세우고 개성에서

서남쪽으로 약 20km 떨어진 부소산 기슭의 경천사 절터로 달려갔다. 일본인들은 ‘고종 황제가 하사했다.’는 허위 주장과 공갈을 내세워 총검으로 위협, 인근 주민들의 저항과 관할 군수의 항거를 묵살하면서 석탑을 마구 해체해 포장하기 시작하였다. 날이 어두워지자 달구지 수십 대에 해체된 석탑 조각들을 싣고 개성역으로 빼돌린 뒤 부산역으로 보내 그곳에서 일본으로 실어갔다. 순식간에 벌어진 문화재 약탈과 야반도주는 분명한 약탈이자 범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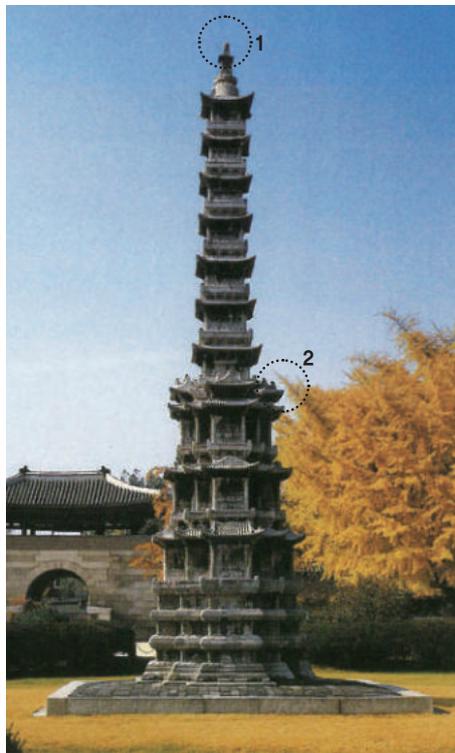
이때 『대한매일신보』는 ‘무기를 가진 일본인 130~200여 명이 무슨 허가를 받았는지 탑을 무너뜨려 일본으로 실어 보내려 했고 이를 막으려는 군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빼앗기지 않겠다고 결사적으로 맹세하였다.’는 기사를 1907년 3월

12일자에 잡보로 내보냈다. 군민들이 결사적으로 저항하고 며칠 동안 탑을 지켰지만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며 석탑을 헐어내는 일본인들을 당해 낼 재간이 없었다. 한 일본인 고위 관리가 황제의 이름을 팔며 순식간에 벌인 이 전대미문의 사기 행각은 곧 서울로 전해졌다. 당시 서울에서 한글과 영문으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던 젊은 영국인의 귀에도 들어갔다. 바로 어니스트 베텔이다. 당시 35세였던 베텔은 1904년 『런던 데일리 뉴스』 특파원으로 조선에 건너왔으며, 『대한매일신보』와 『코리아 데일리 뉴스』라는 두 개의 일간 신문을 발행하고 있었다.

1905년 을사조약 이전부터 시종일관 조선 민족의 입장에서 서 일본의 침략 정책에 맞서온 그는, 이 사건을 문제 삼아 최초로 신문에 보도하는 용기와 양심을 발휘하였다. 이 사실을 안



경천사지 십층석탑의 현재 모습(국립중앙박물관)



1959년 경복궁에 다시 세워진 경천사지 십층석탑

경천사지 십층석탑의 복원



1 철제 상륜부는 조성 당시 원형일까? 문화재연구소는 당초 십자형 지붕으로 조성됐다가 훼손되자 후대에 추가로 만들어 올려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2 3층 옥개석 단면, 4면 돌출형 구조로 8개의 석재를 조립해 구성하고 외부에 만들어진 20개의 면에 정교한 조각을 새겼다.



석탑을 구성한 전체 부재는 142개에 달한다. 오염된 부분은 레이저로 제거하고 깨어져나간 부위는 대리석으로 새로 깎아 붙였다.

통감부에서는 즉각 통감부계 신문인 『서울프레스』와 일본 정부의 대변지인 『저팬 메일』을 통해 ‘이것은 분명한 거짓’이라며 사실을 부정했다. 그리하여 이 문제는 연일 쌍방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가운데 일대 논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서울에서 『코리아 리뷰』라는 월간지를 편집하던 미국 선교사 호머 헐버트는 베텔과 뜻을 같이하며 그에게 큰 힘을 실어 주었다. 헐버트는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후 고종황제의 밀명을 받아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밀서를 전하기 위해 워싱턴에 갔고, 1907년에는 이상설, 이위종과 함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회의에 고종황제의 밀사로 파견되기도 했다. 또한 헐버트는 일본 고베의 영자 신문 『저팬 크로니클』에 이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으며, 미국의 유력 언론인 『뉴욕 포스트』 등도 이와 같은 사실을 보도하고 나섰다.

국내외 여론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일본은 더 이상 석탑 반출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일본인 가운데 양식 있는 이들도 나서 다나카를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작 범행을 저지른 다나카는 꿈쩍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해서 흠쳐 온 석탑을 다시 돌려보내자니 그것도 자존심이 꺾 상하는 일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당시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다나카에게 “석탑을 조선의 원래 있던 위치로 돌려보내라. 그것은 불법적인 반출이었다.”라고 요구했다. 석탑 반출 사건이 한일합방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나카 역시 만만찮은 권력자였는지라 약탈해 간 석탑을 순수히 내놓지 않았고 쏟아지는 온갖 비난 여론에도 귀를 막아버렸다.

1909년, 베텔은 37세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헐버트는 1907년 헤이그로 떠난 이후 1909년까지 미국의 각 도시를 돌며 신문 기고나 연설 등을 통해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렇게 흐르는 시간 속에 이 사건이 잊혀져 가는 듯했다. 그러다가 1916년 데라우



어니스트 베텔



호머 헐버트

치 후임으로 하세가와 2대 조선 총독이 부임하면서 경천사 십층석탑의 반환 문제가 다시 부각되었다. 부임한 지 3년째 되던 1918년 하세가와 총독은 전임자가 해결하지 못했던 경천사 십층석탑의 반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총독부 학무국 고적조사과에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리고 불법 운반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지금까지 포장도 풀지 않은 채 도쿄의 다나카 저택 정원에 11년간 보관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결국 국내외 여론의 압박과 계속되는 반환 요구에 다니가는 굴복하고, 1918년 경천사지 십층석탑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탑재들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하게 훼손된 뒤였다. 게다가 애써 찾아오긴 했지만 서울로 돌아온 석탑은 광복 때까지 경복궁 근정전 회랑에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해체된 채 진열되어 있다가 1959년에 경복궁 내 전통공예관 앞에 세워졌다. 그 후 1994년부터 10년간 해체 복원작업을 거쳐 지금의 국립중앙박물관 실내로 옮겨 세워지게 되었다.

풍운의 근현대사를 겪으며 그 상처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오늘날까지 버텨온 경천사지 십층석탑을 볼 때마다 참으로 다행함과 대견함을 감출 수 없다. 그리고 잊지 못할 고마운 두 사람. 영국인 어니스트 베텔과 미국인 호머 헐버트. 그들의 한국 이름은 각각 ‘배설’과 ‘할보’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그들은 현재 한국의 품에 고이 잠들어 있다. 서울시 합정동에 있는 서울 외국인묘지공원(양화진외인묘지)에 가면 배설과 할보를 만날 수 있다. 🌿

소재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

비밀의 정원

안티-스트레스 컬러링북이라는 『비밀의 정원』이 2015년 7월 넷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어른용 색칠책인 이 책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삶이 그만큼 여유 없고 팍팍하기 때문일 거다. 이런 삶의 스트레스를 없애줄 만한 곳이 없을까?

박물관에는 ‘비밀의 정원’이 있다. 여러 해 박물관을 드나든 사람들도 일부러 마음 먹고 찾아가야만 만날 수 있는 ‘석조물 정원’이 바로 그곳이다. 석탑과 석불, 사리탑 등이 곳곳에 숨어 있는 석조물 정원의 매력은 변해 가는 계절을 느끼며 한가로이 거닐거나 쉴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이라는 점이다. 이곳의 유물 한 점 한 점에는 켜켜이 쌓인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 그 이야기를 따라 시공간을 넘나들다 보면, 내 안의 에너지가 다시 채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원의 여러 탑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건 ‘남계원 칠층석탑’이다. 국보 100호로 7.54미터의 당당한 키와 안정적인 체감물을 보이는 세련되기보다는 강건한 고려의 대표적인 석탑이다. 2층 기단이지만 신라 석탑과 비교하면 아래층 기단이 높아졌고, 2층은 약간 낮아졌다. 몸돌과 지붕돌은 각각 한 개의 돌로 만들었고, 몸돌 모서리에 기둥 모양의 조각을 새겼다. 지붕돌은 두툼한데, 처마 곡선이 완만하게 내려오다가 모서리에서 급하게 들려, 매끈하게 잘 빠진 신라 석탑과는 달리 투박해 보인다. 지붕돌 밑면에는 3단의 받침이 얇게 새겨져 있어, 이 역시 5단의 받침을 새기는 신라 석탑과 다르다. 상륜부 장식 가운데는 하나의 돌로 만든 노반과 복발만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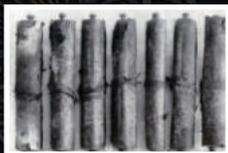
남계원은 경기도 개성시 덕암동에 있던 고려시대 절터다. 이 탑은 1915년 9월 11일 일제가 조선 강점 5주년을 기념해 경복궁에서 연 <조선물산 공진회> 때 전시를 위해 이곳으로 옮겨진다. 경복궁의 200여 전각을 헐고 치러진 일제의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한 선전 행사에 동원된 것이다. 더구나 이때는 기단부를 제외한 탑신부만 옮겨다가 훗날 땅속에 묻혀 있던 2층 기단부를 찾아내 탑 옆으로 옮겼다.

이 행사 때문에 옮겨진 유물은 남계원 탑만이 아니었다. 경주 남산의 삼릉계 약사여래좌상, 감산사지의 석조 아미타불상과 미륵보살상, 이천 안흥사 오층석탑, 원주 영진사지 보제존자 사리탑, 천수사 삼층석탑, 충주 정토사 흥법국사 실상탑 등은 모두 이때 경복궁으로 옮겨졌다가 지금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 남아 있는 유물들이다. 지금은 일본 도쿄의 오쿠라 호텔에 가 있는 ‘이천 향교방 오층석탑’도 이때 같은 이유로 원래 있던 자리를 떠나 오늘날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박물관 뜰에 선 채 수백 년 세월을 넘나드는 상상 속 여행을 즐기다 보면, 지금 여기의 내게 ‘괜찮아. 걱정 마.’라고 가만히 속삭이게 된다.



남계원 칠층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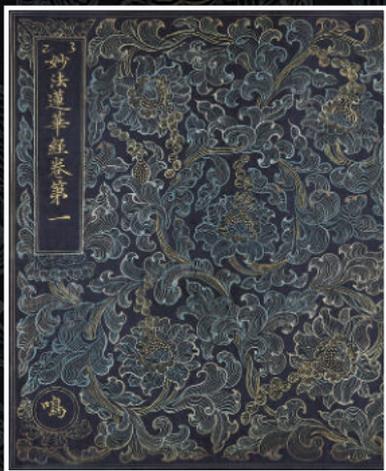


7개의 두루마리로 된 <감지은니 묘법연화경>

남계원 칠층석탑은 고려시대 중기에 세운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연대는 알지 못한다. 다만 1915년 경복궁으로 옮길 때 탑 안에서 7개의 두루마리로 된 <감지은니 묘법연화경>이 발견되었다. 이 사경은 고려 충렬왕 때 승지 염승익이 발원한 것으로, 1283년(충렬왕 9)에 석탑을 수리하면서 넣은 것으로 보인다. 쪽물을 들인 종이에 변상도는 금으로 그리고, 글씨는 은으로 썼다. 1918년에 발행한 『조선고적도보』에 발견 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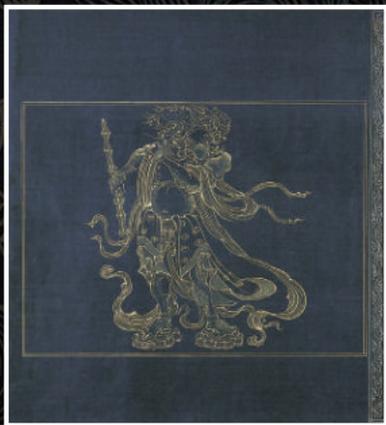
염승익은 충렬왕의 총애를 받았던 당대의 세도가로 1281년 자기 집의 일부를 내놓아 대경사경소大經寫經所를 만들었는데, 그 까닭은 큰 저택을 지으면서 세도를 남용하고 기인其人(중앙에 인질로 와 있는 지방 토호세력들의 자제)을 동원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을까 봐 걱정해서였다고 한다.

남계원 칠층석탑에 봉안한 <감지은니 묘법연화경>도 여기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왕과 공주의 안녕과 나라의 태평을 기원하고, 자신의 극락왕생과 가족들의 평안한 삶을 기원하면서 이 사경을 제작했다. 그런데 이 사경은 개인이 발원한 것인데도, 1행에 14자를 쓰는 형식과 표지화 뒤에 신장상을 그린 점이 국왕이 발원한 사경과 똑같다. 그의 세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케 하는 일이다. 이렇듯 최고의 권세를 누렸던 그도 세월은 어쩔 수 없었는지 1295년 병으로 벼슬에서 물러났으며, 그 후에는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다.



감지은니 묘법연화경 표지(복원)

2007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사경변상도의 세계-부처 그리고 마음> 전시회에 보존 처리를 거친 이 사경이 처음 공개되었다. 엄청나게 공을 들인 화려하고 섬세한 표지화가 수백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다시 살아났다.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선들이 춤추고 있었다. 2015년에 열린 <발원, 간절할 바람을 담다>에서는 표지화 뒤의 신장상 그림과 은으로 쓴 경전 본문이 전시되었다.



감지은니 묘법연화경 신장상(복원)

더운 여름날 초록을 배경으로 한 탑도 좋고, 눈 덮인 한겨울 탑도 좋다. 박물관 뜰에 선 채 수백 년 세월을 넘나드는 상상 속 여행을 즐기다 보면, 지금 여기의 내게 '괜찮아. 걱정 마.'라고 가만히 속삭이게 된다. 🌧️ 길문숙 회원

고려 불탑 입문기

우리나라에는 절이 많고 불탑은 그보다 더 많습니다. 스러진 옛 절터에 건물의 흔적이라곤 주춧돌밖에 남지 않았어도 탑은 곳곳하게 서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 곳에 가면 보통의 절에 갔을 때보다 탑이 더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 탑이 목탑도 아니고 전탑도 아니고 석탑이라서, 그래서 여태까지 남아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이 시점에서 미리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고려 불탑에 대한 글을 쓰려고 자료조사를 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문제점을 깨달았지요.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불탑들을 쫓아보니 대부분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 탑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고려 불탑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 이 글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무지함을 깨달은 한 중생의 고려 불탑 입문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고려의 불탑은 보면
볼수록 재미있습니다.
탑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야기를 많이 해줄 것
같은 모습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조사를 하면서 여태까지 남아 있는 고려시대 석탑이 무척 많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석탑 중 고려 석탑이 900여 기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는 다른 시대의 석탑을 다 합쳐도 150여 기 정도라는 걸 생각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게 많이 있다면 부지불식 중에 어디선가 마주쳤을 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기억을 더듬어 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접하기 쉬운 것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1층에 경천사지 십층석탑이 있고 석조물 정원에도 여러 기의 고려 석탑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순천 동화사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절의 위치가 구불구불한 길을 한참을 달려서야 도착할 수 있는 외진 곳에 있는 데다가 고인의 위패를 봉안하기 위하여 간 길이라 아무런 정보 없이 따라간 곳이었습니. 차에서 내려 경내로 들어설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상당히 오래 되어 보이는데도 상륜부가 남아 있는 삼층석탑이었습니다.



서천 성북리 오층석탑

봉안식을 마치고 나와 안내판을 읽으면서 가족들에게 “이거 고려시대 탑이래요. 보물로 지정된 거네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상을 치르느라 지친 탓인지 무심하게 차에 올랐고 저 또한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후로 그 탑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스쳐간 고려 탑에 대한 기억의 끈을 따라가봤습니다. 작년 남한강변 절터를 답사하면서 보았던 흥법사터 삼층석탑이 기억납니다. 또 내소사 삼층석탑과 봉정사 삼층석탑, 가까운 곳으로는 간송미술관 정원에도 자그마한 고려 불탑이 있었는데 여러 번 가면서도 무심하게 지나쳤다니 왠지 미안한 기분이 듭니다.

무심했던 것보다 더 미안한 건 사실 그동안 고려시대 탑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 놓고 이전 시기의 탑보다 조형미가 떨어진다고 들었던 것만 기억하고 있었는지. 이 기회에 백제 미륵사지 석탑부터 시작하여 조선시대까지 불탑 사진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아! 고려의 불탑들은 참 재미있게들 생겼네요. 조형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있는 반면 어떤 것들은 당대엔 정말 전위적이라고 생각되었겠구나 싶은 것도 있습니다. 고려 석탑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같은 고구려계, 둘째는 미륵사지 석탑이나 정림사지 오층석탑을 닮은 백제계, 셋째는 신라계, 넷째는 고려시대만의 독자적 양식을 지닌 고려식, 다섯째는 그 외 특수 양식으로 지어진 탑들입니다.

사진과 책은 실컷 봤으니 실물을 보려고 답사길에 올랐습니다. 보고 싶은 탑은 많았지만 형편상 두 개만 골랐지요. 먼저 비인 오층석탑이라고 불렸던 충남 서천에 있는 성북리 오층석탑을 보러 갔습니다. 정림사지 오층석탑을 충실하게 모방한 백제계 탑이라는데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왠지 거기에 동의하기 힘들었지만 실제로 보니 나름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백제가 아니라 고려의 탑이라고 알려주고 싶은 듯한 탑의 비례를 보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균형이 깨어졌다 하는 점인데 저는 그런 탑의 모습이 참 재미있네요. 탑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야기를 많이 해줄 것 같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양군 정산 터미널에서 걸은 지 1분도 안돼서 멀리 연밭 한 가운데 서정리 구층석탑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왜소해 보여서 실망스러운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행히도 탑에 다가갈수록 제가 생각했던 풍채 좋은 구층석탑의 모습에 가까워져서 점점 기분이 나아졌지요. 신라계 양식이라고는 하지만 장소와 시대를 반영한 듯 백제와 고려탑의 특징도 지니고 있습니다. 9층이나 되는 층수와 높이, 경사가 완만하다가 끝에서 하늘로 치켜 올라간 지붕돌 등을 보면서 어떻게든 발원을 하늘로 올려 보내려는 발원자들의 염원이 탑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려시대에 이렇게 탑이 많이 세워진 것은 도선道詵의 비보사탑설禪補寺塔說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병이 들어 위급한 경우 혈맥을 찾아 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 것처럼 산천의 병에는 적절한 곳에 절을 짓거나 탑을 세우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태조 왕건이 받아들여 <훈요십조>에서도 당부했을 정도니 그 영향력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불교가 대중화되면서 국가와 왕실 중심으로 불탑을 세웠던 통일신라와는 달리 국가, 지방호족, 하층민들까지 불탑 조성에 참여했다고 하니 탑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단순한 신앙의 대상을 넘어서서, 그 탑을 발원한 사람들의 미감은 물론 당시의 사회상이나 유행했던 사상까지도 다양하게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고려 석탑들의 강한 개성을 조금이나마 더



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균형과 비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가치들이 분명 있었겠지요. 여하튼 그 많은 탑들이 침이 되고 뜸이 되어 산천을 잘 치유하였을지 반대로 너무 과하여서 부작용이 생기진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건강해졌던 산천이 인간의 과한 욕심으로 인하여 다시 병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 서유미 회원

아소카 왕은 정말 아육왕상을 만들었을까?

“ 새로 대궐을 용궁 남쪽에 세우려고 할 때, 황룡이 나타나므로 절로 고쳐 황룡사라 하였다. 담을 쌓아 17년 만에 완성하였다. 얼마 있지 않아 남해에 거대한 배가 떠 와서 지금의 울주시 곡포에 이르렀다. (안을) 조사하여 보니 편지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서축(서인도)의 아육왕(아소카 왕)이 황철黃鐵 5만 7천근과 황금 3만 푼분을 모아서 석가삼존상을 주조하려다가 이루지 못하자 배에 실어 축원하기를 인연 있는 나라에 도달하여 장육존상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와 함께) 1존의 불상과 2존의 보살상의 모형을 보내왔다. … 금과 철을 경주로 가지고 와서 574년 3월에 장육존상을 주조하였는데, … 또 다른 책에는 아육왕이 서축의 대향화국大香華國에서 붓다께서 입멸하신 지 100년 후에 태어나 진신眞身으로 공양하지 못하였음을 한탄하여 금철金鐵 약간 근을 거두어 (장육존상을) 세 번 주조하려다가 성공하지 못하였다. … 왕이 배에 실어 바다로 보내어 남염부리南閼浮提의 16대국과 5백 중국, 1만 소국, 8만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지 않은 곳이 없었으나, 모두 성공하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신라에 이르러 진흥왕이 문잉림文仍林에서 그것을 주조하여 완성하니 아육왕이 그제야 근심이 없어졌다. ”



석조대좌, 경주 황룡사지

고려시대의 승려 일연이 13세기 말에 찬술한 『삼국유사』 권3 「탑상塔像 4 황룡사장육黃龍寺丈六」에는 경주 황룡사 금당에 봉안되었던 장육존상에 대한 기록이 있다. 사실 이 기록에 대한 신빙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황룡사 절터에는 장육존상을 세웠던 석조대좌가 남아 있다. 「황룡사장육」의 기록에서 가장 의문이 드는 것은 아소카 왕(서기전 273~232년 재위)이 인도에서 직접 보내온 불상재佛像材로 불상을 만들었다는 것과 마가다국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 때인 서기전 3세기에 정말 불상이 만들어졌을까 하는 것이다.

아소카 왕은 처음 인도를 통일한 마우리아 왕조를 세운 찬드라굽타 마우리아 왕의 손자이며, 빈두사라 왕의 아들이다. 원래 그는 왕위 쟁탈 과정에서 수십 명의 이복 형제와 그들을 추종하던 수백 명의 신하들을 참살하는 등 포악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서기전 266년, 마가다국의 동쪽에 있던 칼링가국(지금의 인도 동북부 오리사 지역)을 정벌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목격하고 죽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한 끝에 불교로 개종하였다.



아소카 왕 석주



소경묘 신도주, 난징



석조아육왕상, 쓰촨성 청두시 박물관고고연구소

아소카 왕은 대표적인 불탑인 산치 대탑(좀 더 면밀한 연구가 요구되지만)을 건립하고, 석가모니 붓다의 행적과 관련되는 곳에 아소카 왕 석주를 세웠다. 현재 이들 석주는 약 30여 개가 남아 있다. 그는 붓다의 열반 후에 세웠던 8개의 사리탑 중 7개의 탑에서 사리를 모아 8만 4천개로 나눈 다음, 각각 탑을 세워 봉안하였는데, 아소카 탑이 그것이다. 중국에서는 이 탑을 아육왕탑(阿育王塔) 혹은 육왕탑(育王塔)이라고 불렀는데, 아육왕은 아소카 왕을 중국식으로 음차한 것이다.

고대 인도와 중국의 불교도들은 석주와 탑을 세웠던 아소카 왕이 당연히 불상도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지금이야 많은 발굴 자료와 불상 조성에 대한 정보들 덕에 아소카 왕 때인 서기전 3세기에는 불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러한 정보가 전혀 없던 고대에는 불상 조성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불상이 언제 어디서 처음 만들어졌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은 심지어 석가모니 붓다가 인간 세상에 있을 때에 우디아나 왕이 전단목(旃檀木)으로 불상을 조각했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당연히 그들은 불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불탑과 석주를 세웠던 아소카 왕이야말로 불상을 가장 많이 조성한 왕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아육왕상, 즉 아소카 왕이 만든 석가모니상의 전설은 시작되었고, 멀리 경주 황룡사 장육존상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황룡사장육』의 내용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장육존상(아육왕상)의 모델인 석가삼존상이 배에 실려서 남해를 통하여 들어왔다는 점이다. 적어도 기록에 의존해 볼 때, 이 불상은 중앙아시아 타클라마칸 사막을 가로지르는 실크로드가 아니라 바닷길과 관련이 깊다. 놀라운 사실은 현존하는 아육왕상(아소카 왕이 만든 석가모니불상)의 실례가 실크로드와 그 영향을 받았던 시안(西安)이나 뤼양(洛陽)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해상 루트와 관련되는 중국 남쪽 지방에서만 확인된다는 점이다.

한편 아소카 왕과 관련된 경전 『아소카바다나』가 중국에서 번역되면서 중국 불교도들 사이에 아소카 왕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되었다. 이 경전은 서진西晉 때인 306년에 안법흠安法欽에 의해 『아육왕전』 7권으로 번역된 다음, 양나라 때인 512년에 건강建康(난징南京)에서 승가바라僧伽婆羅에 의해 『아육왕경』 10권으로 다시 번역되면서 아소카 왕에 대한 신앙이 중국 남조 불교미술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소카 왕이 세운 아육왕탑이 남조에서 유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석가모니불상을 만들었다는 믿음(적어도 남조의 사람들에게는)은 점점 커져 이 지역에서 아육왕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아소카 왕의 넷째 딸이 만들었다는 동진東晉의 양도揚都(난징) 장간사長干寺 금상金像(326~334년 추정), 아소카 왕이 직접 조성했다는 동진 형주荊州(장링江陵)의 장사사長沙寺 금상, 5세기 초에 아육왕상으로 인식되었던 동진 여산廬山の 문수사리보살 금상 등 아육왕상에 대한 문헌 기록은 주로 남조와 관련된다. 또한 『법현전』(413~416)에는 법현이 인도의 상카시아국(지금의 산카사)에서 아육왕이 만든 장육입상을 보았다는 기록도 확인된다. 이들 기록은 아육왕상이 중국의 남쪽 지방에서 4세기 이후에 활발하게 조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실제로 아육왕상이 남조의 중요 거점이었던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에서 출토되기도 하였다. 1995년, 청두시 시안로西安路에서 발견된 홍사암 재질의 아육왕상은 아소카 왕이 만든 석가모니불상을 중국 고대의 불교도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불상의 뒷면 아래쪽에 새겨진 명문에 의하면, 양나라 551년에 두승일杜僧逸이 죽은 아들을 위하여 아육왕상을 만들었다고 한다. 청두시 만불사지萬佛寺址에서 발견된 또 다른 불상에는 북주北周 문제文帝의 아들인 우문초宇文招가 익주益州(청두) 총관(561~565)으로 있을 때 만들었다는 아육왕상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아육왕상들은 전체적인 비례가 적절하며, 얼굴 표정이 자연스럽고 옷주름이 신체의 굴곡을 따라 유기적으로 처리되어 있는 등 수준 높은 장인의 솜씨를 보여준다. 불상은 양쪽 어깨를 덮은 통견 형식의 짧은 법의를 입고 있으며, 옷주름은 목부터 배꼽까지 U자를 그리며 반복해서 내려오다가 배꼽 아래부터 또다시 U자형을 이루며 흘러내리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두승일이 만든 아육왕상, 쓰촨성 청두 출토 아육왕상과 같이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팔자형 콧수염이 새겨져 있는 점 등은 쿠산시대 간다라 불상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그중 쓰촨성 청두 출토 아육왕상은 오는 9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릴 <고대불교조각대전>에 전시될 예정이다. 남조의 아육왕상 관련 기록에서는 계빈국鬲賓國(카피시) 출신의 승려들이 항상 등장하고 있어서 적어도 남조 사람들은 아육왕상이 서북 인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식했던 것 같다. 당시 쓰촨성 등 남쪽 지방의 불교도들은 아소카 왕이 만든 석가모니불상이 쿠산시대 간다라 불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그 가능성은 간다라 불상의 조형이 쓰촨성에서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후한시대에 이미 쓰촨성 뤄산樂山の 마호麻浩 무덤이나 쓰촨성 무덤에서 출토된 요전수搖錢樹에서 간다라 불상의 조형적인 특징을 갖춘 불좌상이 확인된다.

쓰촨성 청두에서 발견된 이들 아육왕상은 이곳에서 아소카 왕이 만든 석가모니불상이 유행하였다는 것을 알려 준다. 그런데 왜 당시 남조 문화의 중심이었던 건강에서는 이러한 아육왕상이 발견되지 않는 것일까?



석조아육왕상 머리 부분, 만불사지 출토, 쓰촨 박물관 석조아육왕상 신체 부분, 만불사지 출토, 쓰촨 박물관 금동여래입상, 황룡사지 출토, 동국대학교 박물관

사실 양림 무제武帝(464~549)가 아육왕상을 만들었다는 기록도 없고, 그가 세웠다는 아육왕탑도 남아 있지 않지만, 아소카 왕이 세운 석주를 방불케 하는 신도주神道柱가 장쑤성江蘇省 난징시에 위치한 소경蕭景의 무덤(523년)에서 확인된다. 중국의 여느 신도주와 달리, 돌기둥의 꼭대기에 사자상이 조각되어 있어서 아소카 석주와 많이 닮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러한 면은 아육왕상이 건강에서도 상당히 유행하였다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

남조 불상의 중심이었던 건강에서 아육왕상을 포함한 불상들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은 후경侯景의 난(548~551)으로 인하여 이 지역이 초토화되었기 때문이다. 난이 일어나기 전, 양 무제는 쓰촨성 익주益州(청두)를 중요시하여 자신의 친인척인 소씨蕭氏를 익주자사로 임명하였는데, 건강에서 생활하던 그들은 익주자사로 임명되면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고승들을 대동하였다. 따라서 익주 불교와 미술이 건강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과 아육왕상의 도상적인 시원이 건강에 있었을 가능성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그런데 정말 경주 황룡사에서 아소카 왕이 보내준 불상을 모델로 하여 장육존상을 만들었을까? 장육존상 조성을 주도했던 진흥왕은 아소카 왕과 그가 만든 아육왕상에 대한 이야기를 양나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각덕覺德(549년 귀국)과 같은 유학승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제가 양나라의 아소카 왕이 되고자 했듯이, 진흥왕도 황룡사 장육존상을 조성함으로써 신라의 아소카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574년, 진흥왕을 비롯한 신라 사람들에게 비쳐진 아육왕상, 즉 아소카 왕이 만든 석가모니불상은 어떤 이미지였을까? 그 해답을 이번 <고대불교조각대전>에 전시될 쓰촨성 청두 출토의 아육왕상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

배재호 용인대학교 교수

시선에
반하고
솜씨에
취하다



변상벽, 계도(鷄圖), 국립중앙박물관

창호지 너머 햇빛 사이로 향긋한 내음이 코끝을 간질거리네요. 창호를 열어젖힙니다. 한 떨기 짙레꽃이 수줍게 피어 있어요. 달콤한 향기에 모여든 벌들은 웅얼거리며 주변을 돌고 있네요. 그들 앞에 큼지막한 과석이 어미 닭과 올망졸망한 병아리들을 쳐다봅니다. 어미 닭은 병아리들에게 줄 벌을 부리에 물었네요. 저런, 꿀을 모으던 벌 한 마리가 어미 닭에게 잡혔나 봐요. 어찌면 저 벌들의 분주한 날갯짓은 붙잡힌 친구를 향한 애달픔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미 닭 주변에 병아리들 좀 보세요. 어미 앞에 웅기종기 모여 먹이를 기다리는 녀석들, 입에 지렁이를 문 놈과 건너편에서 마주 당기는 놈, 어미가 물고 있는 먹이보다 지렁이를 둘러싼 병아리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녀석, 깨진 사발 위에서 물 마시는 놈과 입 벌리고 하늘 보는 놈, 수줍게 어미 다리 사이로 파고드는 녀석과 뒤꽂무니에 숨어 얼굴도 안 보이는 녀석이 보이네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먼저 눈이 가는 녀석은 따뜻한 햇볕에 저도 모르게 눈이 감겨, 선 채로 즐고 있는 귀여운 놈이에요. 믿음직한 어미 닭과 살가운 열네 마리 병아리가 나른한 일상에 웃음을 주네요.

〈계도〉 앞에 서면, 열린 방 창호에서 바깥 풍경을 보는 또 다른 누군가가 함께 보인다.

2년 전 여름, 김홍도, 신윤복의 풍속화와 함께 변상벽의 동물화는 회화실을 사랑스럽게 만들었는데, 그 자리가 다른 작품으로 바뀌었을 때 빈자리가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오랜만에 찾은 회화실, 멀리서도 익숙한 그림 한 점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반가움이란. 저절로 미소를 머금게 하는 천연덕스럽고 정겨운 병아리의 모습 때문일까, 나도 모르게 빙그레 웃고 말았다.

〈계도〉는 만날 때보다 돌아서면 더 생각나는 친구같이 맘이 따스해지는 작품이다.

화조와 동물은 청동기시대부터 그림에 등장했다. 고려시대에도 이규보의 시 ‘새와 짐승을 보고 즐기기 위해 좌우에 두네.’의 구절에서 보듯이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소재였다. 인간의 친근한 동반자이자 오랫동안 사랑 받아온 대상이기에 조선시대에는 화본을 통해 그려지기보다 실물 그대로 화폭에 담겨지는 일이 많았다. 화조 동물화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선사해주면서 한국적인 정서를 잘 보여주는 영역이기도 했다. 또한, 궁중 도화서 화원의 시험과목이면서 민간에까지 널리 퍼질 수 있었던 이유는 부귀와 복을 가져다주고 집안의 액을 막아준다는 상징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뛰어난 화조 동물화의 조건은 대상을 ‘종일토록 관찰해서 그 진형眞形을 터득한 후에야 붓을 들었다.’는 공재 윤두서의 말처럼 정확한 관찰력과 표현력으로 사실주의 정신까지 묘사하는 것이었다.

그런 면에서 변상벽은 조선 후기 동물화의 진수를 보여준다. 〈묘작도〉와 함께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계도〉는 예리한 관찰력과 사생력寫生力로 생김새와 동작을 실감나게 묘사했을 뿐 아니라, 가장 그리기 어렵고 중요하다는 눈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였다. 이것은 그가 어진을 비롯한 초상화에서 눈빛으로 능숙하게 대상의 정신을 담아내듯이 어미 닭에도 똑같은 눈매를 투영한 것이다.

변상벽은 자세한 생애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말더듬이에 소심한 성격이었다고 하는데, 일단 한번 꽃힌 일과 그 사이의 온도는 100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열정적이었다고 한다. 그의 탐구적인 자세는 대상에 대한 올곧은 이해로 이어진다. 자식들을 바라보는 어미 닭의 눈빛은 건강함을 담고, 그 눈매는 푹푹푹푹한 병아리의 표정을 그윽하게 바라본다. 화원의 마음과 인생은 그의 손끝을 거쳐 살아 움직이는 그림으로 내 안에 쏙 들어왔다. 특히 즐기고 있는 병아리의 눈빛은 그림 속 주인공에게 애정이 없거나 사물을 찬찬히 눈여겨보지 않으면 절대 그릴 수 없는 경지이기에 더 큰 감동이였다.

별 좋은 날, 삐악거리는 병아리의 청량한 소리와 긴장한 별의 웅웅 소리, 그 향연이 고요한 전시실 벽을 타고 내 귓전으로 다가온다. 자연의 소리가 화가의 귓가를 지나 뇌를 자극하여 그림 속에 소리의 형상을 담을 수 있다니 그저 놀라울 뿐이다. 그림에 풀어 놓은 봄날이 귀여운 병아리의 움직임과 별의 날갯짓으로 살아가는 화원의 섬세한 손길이 소리를 표현하면 비단 화폭에 춤사위가 절로 피어나지 않았을까.

어미 닭과 병아리 그림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풍경 속에 그림 읽는 즐거움이 있다. 어미 닭의 깃털은 개성적인 무늬와 색감이 생생하고, 꿈지 꿈지로 갈수록 색이 진해지고 윤기가 흘러 건강한 암탉의 수려한 품새를 보여준다. 다양한 자세와 행동을 보이는 병아리들의 묘사 또한 재치와 웃음을 자아내며 화가의 숨씨에 매료되게 한다. 한 손에 들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보송보송한 솜털의 병아리와 푹푹하고 멋스런 어미 닭의 질감은 대비되기보다는 따뜻한 색감으로 정겨운 분위기를 가득 채운다. 정약용은 변상벽의 그림을 보고 쓴 시 「제변상벽모계영자도題下相壁母雞子圖」(『여유당전서』 권 6)에서 ‘닭과 병아리 그림을 보니 마디마디



살아있는 듯하네.’ ‘형형의 세세 묘사가 뾰뚱하고 도도한 기운이 생동하네. 후문에 듣건대 처음 그릴 때 수탉이 오인할 정도였다네.’라고 생생한 묘사력을 칭송하며 사실적이고 정밀한 그림의 미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어미 닭 얼굴에 작은 티처럼 내려앉은 찔레꽃잎이 돌아서던 발걸음을 다시 멈추게 한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게 만드는 화가의 재주가 작은 꽃잎 위에 살포시 놓였다. 자주 만나 느껴보려고 한 변상벽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통했다는 기분에 미소가 절로 난다.

양증맞은 병아리의 재미난 동작은 어느 새 훌쩍 자라 버린 내 아이의 어릴 적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어쩌면 그 시절 아니 언제나 자식 앞에 선 내 표정과 자세는 어미 닭과 닮아 있지 않을까?

커다란 책가방이 한쪽으로 쏠린 줄도 모르고, 용돈을 털어 떨고 있는 병아리를 사 들고 들어오던 아들이 아이의 목소리가 들린다. “엄마, 애 좀 봐봐. 예쁘지! 오늘부터 내 동생 할 거야.” 즐지에 엄마를 암탉으로 만들 어버렸다. 🐣

정은정 화원

대가야인의 숨결

대가야박물관을 마주한 첫인상은 꽤나 특별하다. 한눈에 대가야박물관 건물을 둘러싼 산등성이에 길게 늘어선 고분들의 볼록한 봉우리가 들어오며 대가야의 정기가 되살아나는 듯하다. 고분을 닮은 박물관 지붕의 완만한 선이 그 너머 고분들의 부드러운 곡선과 어우러져 푸근하게 다가온다. 시간을 한참 거슬러 가야국의 중심 읍락이었던 고령의 어느 한 지점에서 있는 것 같아 살짝 흥분하며 대가야인의 삶 속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대가야박물관은 대가야 왕릉이 모여 있는 주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으며 대가야역사관과 대가야왕릉전시관, 우륵박물관 등으로 구성되어 찬란했던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다.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야외전시장에는 대가야인의 주거 형태를 추측할 수 있는 움집과 창고가 복원되어 있으며, 고령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던 석탑, 불상 등 불교 관련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대가야역사관의 1층 기획전시실은 연간 1회 이상 고령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기획특별전을 개최하는데, 현재는 <고문서로 옛 고령을 읽다>라는 주제로 일반에게 처음 공개되는 고령 지역의 명문가 종택과 향교, 서원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를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고 있다. 전시실 한쪽에는 영남학과의 종조인 김중직의 일대기와 업적에 대한 내용과 함께 점필재 종택에서 소장하고 있던 유물이 상설 전시되어 있다.

2층의 상설전시실은 대가야를 중심으로 선사시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고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함께 대부분 고령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몸체가 시원스레 쪽 뺀 기다란 그릇받침과 유난히 허리 부분이 동그랗게 도드라진 항아리가 시선을 끈다. 그릇받침은 원통 모양이나 바리 모양으로 물결무늬가 새겨져 있으며,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구멍이 뚫려 있다. 원통모양그릇받침은 최고 지배층의 무덤에서만 출토되며 조형미가 뛰어난 독창적인 양식의 토기이다. 바리모양그릇받침은 아래가 둥근 항아리를 얹어 놓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원통모양그릇받침



긴목항아리와 바리모양그릇받침



금귀걸이

바리가 얇고 다리 부분의 폭이 넓어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긴목항아리는 긴 목이 부드럽게 좁아지며 몸체 부분과 S자 곡선을 이루는데 그 부피감이 얼마나 팽팽한지 볼수록 경쾌하다. 대가야의 토기는 신라나 백제의 토기와 달리 부드러운 곡선과 풍만함이 주는 안정감이 특징이라 한다.

방울 모자가 연상되는 지산리 32호분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이제껏 보아 오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띠 모양의 관테 위에 광배 모양의 금동관을 세우고 좌우에 꽃봉오리가 맺힌 가지를 붙였으며 표면에는 못으로 두드려 물결무늬를 새겨 놓았다. 화려해서 매료되었던 신라의 금관과 달리 대가

야의 금관과 금동관은 아주 단순해서 오히려 특별하다.

왕족과 귀족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다는 금으로 만든 귀걸이는 흔들거림이 좋도록 사슬로 연결하여 여러 형태의 장식을 매달았다. 가야 여인과 현대 여인의 귓불에서 달랑달랑 흔들거리는 귀걸이를 나란히 그려 보며 귀걸이의 사슬처럼 대가야와 현재를 이어주는 연결 고리에 대해 생각해 본다. 갑옷이나 금동관 등 금속 유물의 표면에 엉겨 붙은 가죽이나 직물의 흔적, 굽다리 접시에 담긴 복숭아씨, 고동, 생선 뼈, 닭 뼈 등의 먹거리가 현재와 그리 다르지 않아서, 유리창을 사이에 둔 1500여 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

대가야역사관 옆으로 난 오르막길을 오르면, 국내에서 최초로 확인된 대규모 순장묘인 지산리 44호분의 내부를 원래의 모습대로 재현해 놓은 대가야왕릉전시관이 있다. 실물 크기로 복원된 지산리 44호분 속으로 들어가 고분의 구조와 축조 방식, 고분 주인과 순장자의 매장 모습, 부장품의 종류와 성격 등 대가야의 순장 풍습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 구조와 배치가 생생하게 복원되어 마치 순장하는 현장에 있는 것처럼 묘한 긴장감이 들어 발걸음이 조심스럽다. 지산리 44호분은 중앙에 고분 주인과 2명의 순장자가 함께 묻힌 으뜸돌방과 고분 주인의 내세 생활을 위한 부장품과 함께 각 1명의 순장자가 묻힌 창고 성격의 딸린돌방 2기가 있다. 그리고 이를 둘러싸듯이 32기의 소형 순장 돌덧널이 배치되어 있다. 금귀걸이, 철제 갑옷과 투구, 장식마구, 청동제 그릇, 각종 토기, 야광조개국자 등



지산리 32호분 금동관



지산리 고분군



대가야왕릉전시관 내부

많은 부장품이 출토되었다. 오키나와가 원산지인 야광조개국자는 대가야의 원거리 교역 활동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다. 고분의 입지, 규모와 출토 유물 등으로 보아 지금까지 발굴된 가야고분 중 최고의 위계를 가진 왕릉으로 추정한다. 특히 이 고분의 순장자는 시종, 무사, 마부, 일반 백성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고분 주인의 편안한 사후 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다. 머리를 반대로 두고 몸을 겹친 상태로 묻힌 부부로 추정되는 30대의 남녀, 나란히 어깨를 맞댄 10살 전후의 여자아이, 젊은 아버지의 배 위에 반듯이 누워 있는 어린 딸의 모습 앞에서 분노와 함께 슬픔이 밀려온다. 비록 현세의 삶이 내세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믿었다지만 순장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저항 없이 그 운명을 받아들였을지 의문이 든다. 생죽음을 당한 영혼의 비명과 울부짖음이 들리는 듯하여 지금까지 담담하게 관람했던 게 미안하다는 마음으로 대가야왕릉전시관을 나선다.

대가야박물관을 찾기 전까지는 대가야가 가야 연맹체의 한 나라이며 풍부한 철 생산을 기반으로 철기 문화가 발달한 고대 국가라는 정도의 얇은 지식이 전부였다. 하지만 대가야박물관을 탐방하며 대가야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하게 되었다. 대가야는 42년부터 562년 신라에 의해 멸망되기까지 500년이 넘도록 존재한 후기 가야 연맹체의 맹주국이었다. 또한 가야금을 비롯해 토기, 철기 등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한, 고구려·백제·신라에 버금가는 강성한 나라였다. 다양한 주제와 상세한 해설을 곁들이고 있어 대가야인의 생활과 문화를 보다 쉽고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대가야 박물관은 이름 그대로 대가야의 우수한 문화를 보고 듣고 체험하며 대가야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

계유에 회원

三物三色



잡상, 국립중앙박물관

지붕 위의 수호자들 한국 전통 건축물의 지붕은 선이 굵다. 버선코나 살포시 들어 올린 치맛단의 곡선미를 생각나게 하는 처마는 기와를 올려 묵직해진 지붕이 날아갈 듯 가벼워 보이게 한다. 선의 유영을 살피려 시선을 높이하고 가까이 다가서면 비로소 보이는 작은 형상들이 있다. 높다란 지붕 위에 쪼르르 나란한 조형물들, 잡상 雜像이라 불린다.

악귀와 흉악을 물리친다는 벽사의 상징인 잡상에는 『서유기』의 주인공들과 도교의 잡신, 그리고 상상의 동물들이 등장한다. 기와처럼 구워낸 잡상은 ‘지체 높은 토우’로 궁궐의 전각이나 문루의 추녀마루에 모셔진다. 그런데 실제 인물인 현장법사를 표현한 맨 앞자리의 대당사부만 번듯한 모습이다. 다른 형상들은 기다란 두 팔을 내려뜨린 채 사방을 경계하는 자세로 차림새는 허술하고 생김새는 뒤죽박죽이다.

손오공을 형상화한 손행자는 끝이 뾰족한 모자를 쓴 의인화된 형태 외에 완벽한 원숭이 모습(창덕궁 신선원전 터에서 발견)도 있다.

당나라의 현장법사가 북인도에서 불경을 구해 돌아온 사실 史實에 입각한 『서유기』는 명나라의 대표적 신괴神怪 장편 소설로 요괴가 나타나고 도술이 펼쳐진다. 천계를 빌어 현실세계의 타락상을 해학적으로 풍자하며, 천제의 자리를 운번제로 하자는 선진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 『서유기』 주인공들의 활약상을 떠올리니 자그마한 체구의 잡상을 향한 이런 저런 염려들이 누그러진다. 위기상황에서는 신통력을 제대로 발휘하리라 믿어본다.

본격적으로 잡상을 올린 것은 임진왜란 이후부터라 알려져 있다. 전쟁의 상흔을 어루만지려 가상의 힘이라도 빌리려 했던 것인가, 역사의 질곡이 시리기만 하다.

지상의 파수꾼

광화문 양 편에는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듬직한 석조물들이 있다. 높은 좌대 위에 늙은 자세로 앉아있는 해태 한 쌍이다. 중국 요순 시대에 등장해서 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는 상상의 짐승인 해태는 ‘해치’로도 불리는데 ‘해님이 파견한 벼슬아치’에서 맨 앞과 맨 뒤의 글자를 합친 것이라 풀이하기도 한다. 태양승배 사상에 따르면 해는 만물을 생성시키는 근원으로 해가 뜨면 귀신과 흉악한 짐승은 사라지고 병자는 깨어나므로 재앙을 물리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프로 야구 팀 ‘해태 타이거즈’를 기억해내며 호랑이의 변형인가 하는데, 피부는 비늘로 덮였지만 사자의 모습에 가깝고, 머리에 뿔이 하나 있다. 해태는 시비나 선악을 판단하는 신령스러운 동물로 법과 정의의 상징한다. 옳지 않은 일을 한 사람을 뿔로 받아 버린다고 한다. 중국 초나라 법관과 조선 사헌부 관원들의 의복 문양, 그리고 우리의 국회의사당 정문을 지키는 조각상이 이와 연관된다.

해태는 재앙을 막는 벽사의 상징 외에도 물의 신수神獸로 궁중뿐만 아니라 민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맡는다. 설화에 따르면 물에서 살기에 오행설에 맞춰 화재火災를 막아 준다고 한다. 경복궁의 해태는 중건 역사 도중 불이 자주 일어나자 관악산의 화기로부터 한양 도성을 보호하기 위한 풍수 작업이었다.

불을 먹고 산다는 해태가 그려진 세화歲畫는 가옥 내에서 불을 다루는 부엌에 붙이는데, 이때 해태는 무서운 모습에서 벗어나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묘사된다. 사찰에서는 업경대의 받침대에 새겨지고, 궁궐에서는 왕권의 위엄과 수호를 나타내는 기물에 표현된다. 사망팔방 다양한 표정과 자세로 등장하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경복궁 근정전 월대(궁궐 전각 밑에 놓인 섬돌)의 해태상이다. 보기 드문 가족상으로 망중한을 즐기는 모습이다. 1592년 전소 이후 1867년에 이르러서야 중건에 들어간 경복궁,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들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심정마냥 애뜻하고 간절하였을 것이다.



경복궁 근정전 월대의 해태상

땅 속의 석수瑞獸

지하세계의 수호자를 자칭한 상상의 동물도 있다. 사자死者가 안치된 무덤의 묘실에 위치하여 외부의 나쁜 기운을 막고 죽은 자의 영혼을 인도한다는 진묘수鎮墓獸이다. 중국의 경우, 초기에는 주로 점토 조형이었고 점차 유약을 사용한 도기로 바뀌어 갔다고 한다. 몸체는 사자, 용, 멧돼지 등의 짐승이고 얼굴은 사람이나 동물의 모습이어도 머리에는 뿔을, 몸에는 날개를 달고 있는 무시무시한 괴수의 모습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석수가 유일하다. 우리 고고학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 일컬어지는 무령왕릉은 유일하게 주인이 밝혀진 삼국시대의 왕릉이다. 중국 남조 양나라의 무덤 양식인 전축분(벽돌무덤), 일본에서만 자라는 금송으로 제작된 목관 등이 6세기 동아시아 문화의 정수를 수용하며 백제를 강국으로 재건시킨 무령왕의 위대한 업적을 증언한다. 1971년 여름 이루어진 발굴 당시의 현장 사진을 보면 석수에 가장 먼저 시선이 향하게 된다. 사방이 소나무의 뿌리로

뒤덮이고 수많은 유물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무덤의 널길 중앙에서 밖을 향해 서 있는 모습이 참으로 당당하다. 1500여 년 동안 암흑과 침묵의 세계를 오롯이 지켜낸 후 후손에게 왕릉을 인도하는 마지막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중국의 진묘수가 무덤에 침범하는 자와 맞서 싸우리라는 전의를 느끼게 한다면 우리의 것은 묘주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켜온 살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전해준다.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안식을 취하는 석수가 목도한 백제 문화는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섬세한 문양의 금제관식만큼이나 찬란했을 것이다.

나쁜 것을 막아내고 좋은 것을 맞이한다는 벽사진경을 형상화한 조형물 중 잡상, 해태, 진묘수를 마음속에서 한자리로 모아 본다. 태곳적부터 변함없었을 우리네 소망이 내재된 상상의 존재들은 서로 다른 시대에 태어나 각자 다른 영역을 굳건히 지켜내고 있다. 그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현재가 궁금하다. 역사의 홍망성쇠에서 어느 지점에 닿아 있을까. 문정원 회원



무령왕릉 석수, 국립공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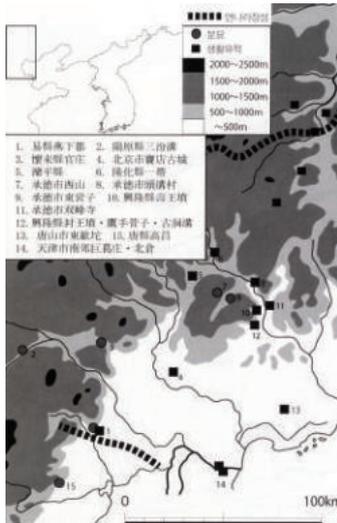


진묘수, 중국 후한,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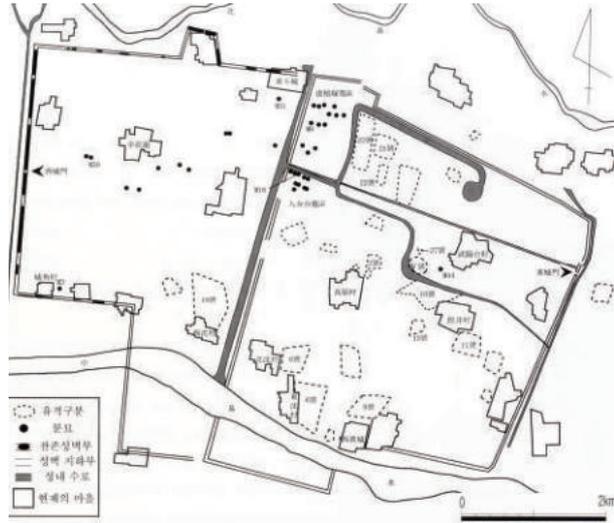
연하도燕下都 철기문화의 성립과 전개과정

—주조철부를 중심으로—

奎B(蓋)



연하도와 주변 유적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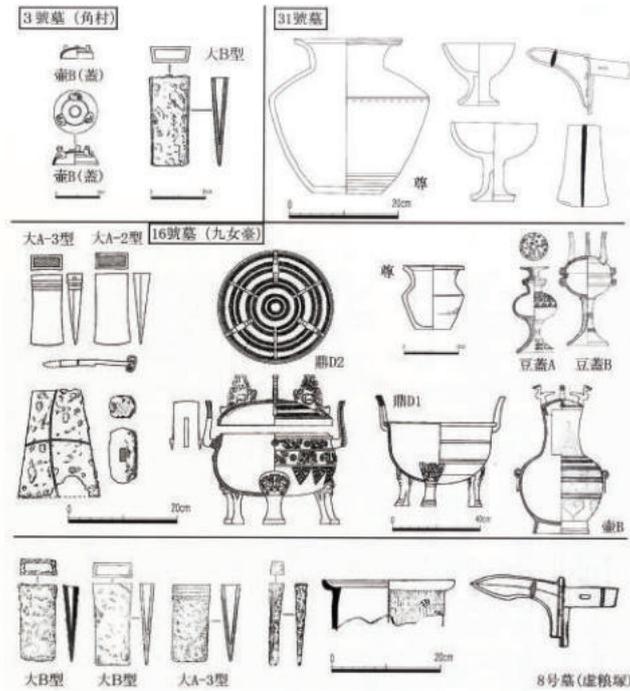


연하도 내부 유적의 분포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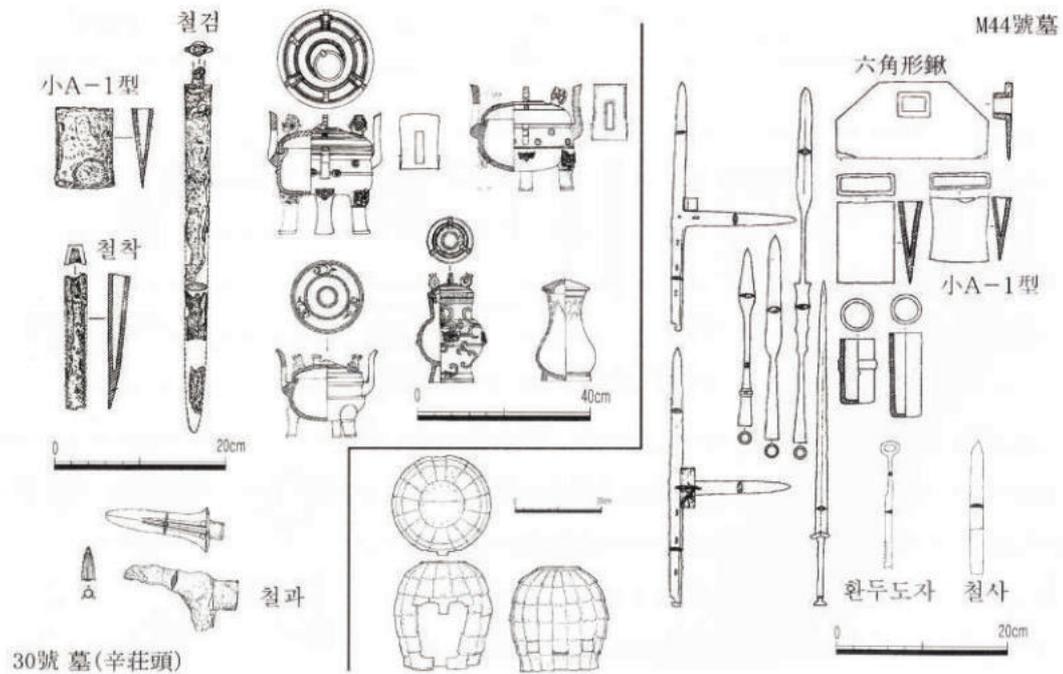
동북아시아 철기문화의 성립과 전개과정은 중국 전국시대 연나라 철기문화의 유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연나라 철기문화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문헌기록에 의존한 논의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본고는 연나라의 중심지 중의 하나인 연하도燕下都의 철기 자료를 고고학적 방법으로 검토하여 그 변천단계와 전개과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하도 철기문화는 크게 3기에 걸쳐 변천되는 양상을 보인다. 전국시대인 기원전 4세기대에 성립되기 시작하여 기원전 3세기대에 최성기에 이른다.

연하도에서 철기문화가 등장한 시기인 ‘연하도 1기’는 구녀대九女臺 16호묘의 연대를 고려하여 기원전 4세기대를 중심연대로 보았다. ‘연하도 1기’의 철기류는 분묘에서 청동제 무기류와 함께 판상철부, 주조철부와 같은 농공구류가 부장품으로 출토된다. 특히 주조제 농공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후에도 환두도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기종이 주조품에 해당되고 있어 연하도의 초기철기문화는 주조품이 주체가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또한 ‘연하도 1기’에 해당하는 구녀대 16호묘에는 망치형 철기와 판상철기와 같은 단야구 세트가 부장되었다. 이를 통해 최초의 철기 소유와 생산은 특정 계층에 한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부장유물과 함께 철기가 부장되는 구녀대 16호묘와 허양총虛糧塚 8호묘는 연나라의 귀족묘로 상정되고 있어 철기를 생산하고 소유한 계층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연하도 1기의 철기와 공반유물



연하도 2기의 철기와 공반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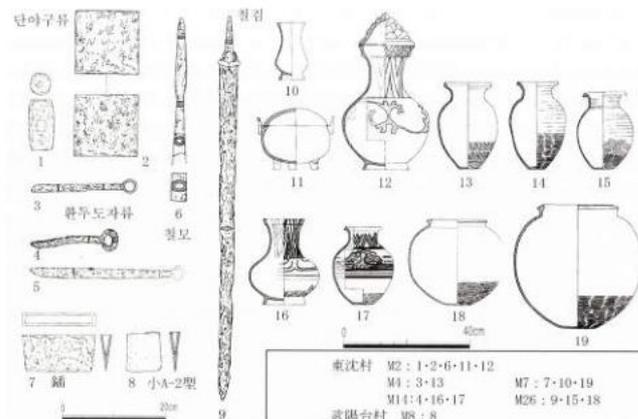
이후, 소형 주조철부의 등장을 특징으로 하는 ‘연하도 2기’는 신장두辛莊頭 30호묘의 연대를 통해 기원전 3세기대로 보았다. ‘연하도 2기’는 이전 시기에 비해 무기류의 부장이 다수를 차지하며, 철제 무기류의 부장도 크게 증가한다. M44호묘에 부장된 철제무기류는 이 시기 다양한 무기류의 일면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철제무기류의 출토가 증가하는 양상은 이 시기 무기류에 대한 상징성이 강해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철기는 이전 시기까지 주로 부장품으로만 다루어졌지만, ‘연하도 2기’ 이후 취락 내 철기의 출토량이 급격히 증가한다. 취락 내에서 출토되는 철기류는 주조철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종의 농공구류가 확인되며, 모루, 망치, 소재와 같은 단야 관련 유물도 출토된다. 이를 통해 ‘연하도 2기’가 되면 취락 내에서 주조 공정뿐만 아니라 단야 공정도 이루어졌으며, 철기의 소유가 특정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철제 농공구를 중심으로 철기의 사용이 크게 보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연나라의 멸망, 전한前漢의 성립과 함께 연하도 철기문화는 큰 변화를 맞이한다. 즉, ‘연하도 3기’는 ‘연하도 2기’의 크게 성행하던 철기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철기의 출토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기종도 한정된다. 연하도 이외의 지역에서도 한대의 분묘를 중심으로 철기의 부장이 이루어지지만, 철기는 다른 부장품에 비해 적은 편이며 1~2점만이 부장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전 시기까지 다수를 차지하던 주조철부는 확연히 줄어들고 농공구 중에는 쇠삽鐵鏟의 부장이 두드러진다. 쇠삽은 부장되는 분묘의 구조나 공반유물과의 관계를 통해 한나라의 유물로 볼 수 있는 ‘연하도 3기’의 대표유물임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주거지 내 횡공부橫釜, 호미鐵鋤나 삽날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농공구가 출토된다.

이를 통해 ‘연하도 3기’는 기존의 주조철기를 중심으로 한 연나라의 철기문화에서 단조철기를 중심으로 한 한나라의 철기문화로 점진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한대에 들어서 철기생산의 제한과 철관의 설치와 같은 제도적인 규제가 강화되는 점, 동시기 연산燕山 남부지역에 철관이 존재하지 않는 점은 연하도와 그 주변 일대가 전한대 이후 철기의 생산지에서 철기의 수급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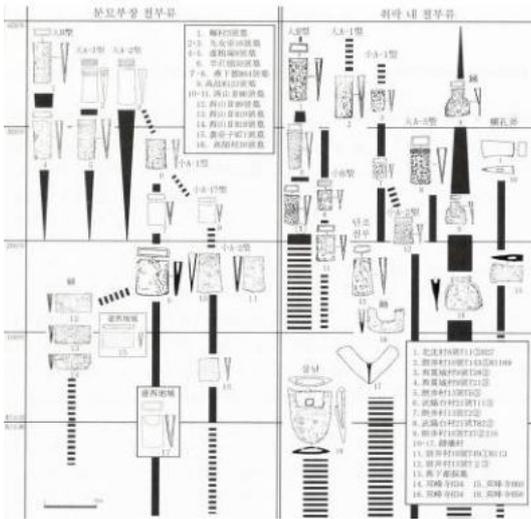
이처럼 연나라의 철기문화는 기원전 4세기를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전국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기원전 3세기대가 되면, ‘무기류의 철기화’, ‘철기 생산 기술의 발전’, ‘도구로서 철기의 보편화’가 이루어진다. 즉 ‘연하도 2기’인 기원전 3세기는 연나라 철기문화의 최성기인 것이다. 이후 연나라의 멸망과 함께 기존의 철기문화는 지속적으로 발전되지 못한다. 이는 한나라의 성립 이후 철기생산의 제한과 철관의 설치와 같은 제도적인 규제가 강해지는 것과 관련될 것이다.



연하도 3기의 철기와 공반유물

年代	450年 前5世紀代	300年 前4世紀代	200年 前3世紀代	紀元前後 前2世紀代	前1世紀代
朝鮮政階		燕下都1期	燕下都2期		燕下都3期
聚落의 層位		戰國前·中期層	戰國後期層		

연하도 철기문화의 변천단계 층위의 병행관계



연하도와 그 주변 지역 주조철부의 변천과정

연하도를 중심으로 연나라 철기문화를 살펴본 결과, 주조철부를 대상으로 한 철기의 변천 양상에서 가장 중요한 획기는 기원전 3세기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원전 3세기대가 연나라 영역 확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시기라는 것을 고려하면, 동북아시아 제 지역에 철기가 유입되는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김상민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심사평_안승모(원광대학교 교수)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철기문화의 성립과 전개는 전국시대 연나라의 영역확장에 따른 철기 제작기술의 확산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철기의 한반도 유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나라 철기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수적이거나 한국 학자들의 관련 연구는 극히 미진한 실정으로 중국 학자나 일본 학자의 연구를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본 논문은 연나라의 철기 생산 중심 유적인 연하도의 철기 자료를 고고학적 방법으로 검토하여 그 변천단계와 전개과정을 확인하였기에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심화되어가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중국 동북지방에 대한 한국 고고학자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

심사평_오영찬(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 논문은 한반도 철기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국시대 연나라의 연하도 철기문화를 고고학적인 방법으로 검토하여 변천단계와 전개과정을 고찰하였다. 연하도 유적과 주변 지역의 취락에서 출토된 철기의 현황과 함께 유적의 층위별로 철기의 현황을 정리하고 주조철부를 중심으로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전국 중기인 기원전 4세기를 성립기, 기원전 3세기를 성행기, 기원전 2세기를 쇠퇴기로 3단계 구분하였으며, 연하도 3기 이후 기존의 주조철기를 중심으로 한 연나라의 철기문화에서 단조철기 중심의 한나라 철기문화로 점진적인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고고학적 방법론에 충실하여 주조철부의 형식 분류를 바탕으로 연하도 성지 내 취락을 중심으로 층위에 따른 철기의 변화상을 추출하였으며, 토기, 청동기, 화폐 등 분묘 내 공반유물과의 상호 비교를 통해 철기가 부장된 분묘군의 선후 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 아울러 기원전 3세기대 연나라의 영역 확장과 관련하여 동북아시아 제 지역에 철기가 유입되었을 것으로 파악하는 등 동북아시아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철기문화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려는 노력도 엿보인다.

고대불교조각대전

불상,
간다라에서 서라벌까지



특별전 <고대불교조각대전>이 용산 이천 재개관 10주년을 기념하여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전시기간은 9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이다.

불상의 탄생에서부터 불교의 동점東漸 과정을 따라 인도, 중국, 한국, 일본의 대표적인 불교조각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시대순으로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의 1부에서는 인도의 사례를 통해 불상의 창안이라는 점에 비중을 두고, 2부에서는 중국에 불교가 전해지는 과정, 이후 불교조각이 중국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3부는 한반도와 일본에서 제작된 불상을 당시 두 나라의 관계를 중심으로 소개하며, 마지막 4부에서는 인도, 중국, 한국, 일본의 대표적인 반가사유상을 전시하여 비교·감상할 수 있다. 🐼



불경 상자. 고려. 하치우마 다다스 기증실, 국립중앙박물관

나노 상자의 비밀

사람들은 너를 숫자로 말해줘야 알아듣지.
가령,
사방에 당초무늬며 꽃무늬로 휘감겨 있는
세밀한 무늬들은 마음을 열고 보아야 잘 보인다는 말로
너를 표현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가우뚱거리면서 아리송해 하지.

하지만, 너를
가로 세로 각각 3cm도 안 되는 상자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때서야
그렇게 작은 상자에 불경을 넣었다고?
라며 금방 가늠을 하게 되지.

고 작은 상자에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그토록 세밀하게 새겨 놓았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토록 섬세하게 말하고 싶었던 천년의 역사를
어찌 단지 숫자로만 말한다고 알 수 있겠어.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鎭, 鄭鎭肅, 金榮秀, 俞相玉, 柳昌宗 회장을 거쳐 2011년 11월 金正泰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金正泰
 副 會 長 | 申聖秀 洪錫肇
 理 事 | 金英那 金信韓 南秀淨 朴殷寬 尹碩敏
 尹在倫 李健茂 李圭植 許榕秀 洪政旭
 禹燦奎 鄭溶鎭
 監 事 | 金教台
 事 務 局 長 | 辛炳讚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원, 청룡 오십억원, 백호 삼십억원, 주작 십억원, 현무 오억원, 천마 일억원, 금관 오천만원, 은관 삼천만원, 청자 일천만원, 백자 오백만원, 수정 이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주작회원

尹光子 회원

현무회원

金正泰 하나금융그룹

천마회원

千信一 세종문화재단 이사장
 孫昌根 소장가
 尹章燮 호림박물관 이사장
 申憲澈 SK에너지
 尹碩敏 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
 朴殷寬 (주)시몬느 회장

금관회원

俞相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朴炳燁 팬택&큐리텔
 鄭在鳳 (주)한섬
 姜德壽 (주)STX
 朴容允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鄭明勳 서울시향 고문
 權俊一,具在善 Actium 부회장
 庚園 광제사 주지
 鄭溶鎭 신세계 그룹 부회장
 都炯泰 갤러리현대 부사장
 申聖秀 고려산업(주) 회장
 洪錫肇 (주)BGF리테일 회장
 李埜旻 Mashup Angels 대표
 尹在倫 서울대학교 교수
 許榕秀 GS에너지(주) 부사장
 洪政旭 (주)헤럴드 회장
 南秀淨 (주)엔애프드 대표
 金信韓 대성 사장
 李明姬 일우재단 이사장
 趙顯相 효성그룹 부사장
 李圭植 경신금융 대표
 曠 憬 회원

은관회원

柳昌宗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金鍾漢 (주)종합전기 대표
 成弼鎬 광성기업 대표
 徐載亮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柳芳熙 (주)풍산주택 회장
 金寧明 (재)에올 이사장
 최철원 M&M(주) 사장
 金承謙 서릉지주(주) 대표이사 부사장
 姜院基 오리온 대표
 金芝延 (주)컨셉 대표
 李教祥 서울가든호텔 부사장
 金英姬 회원
 朴禎原 (주)두산 사장
 梁洪碩 대신증권(주) 사장
 許允秀 (주)ALTO · (주)ALTEK 부사장
 宋 哲 성문출판사 대표
 金南延 (주)동훈 대표이사
 朴知原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
 全裁範 금강공업 부사장
 許允烘 GS건설 상무
 金教台 삼성회계법인 대표

청자회원

申硯均 아름지기 이사장
 朴仙卿 용인대학교 부총장
 田永采 한길봉사회 이사장
 金永珮 김&장 법률사무소
 玄明官
 許正錫 일진홀딩스(주) 대표
 李宇鉉 OCI 사장
 金性完 스무디킹 Global CEO
 李仁洙 수원대학교 이사장
 金榮秀 2014아시아게임 조직위원장
 胡鍾一 호성공업회장
 趙炳舜 성암고서박물관장
 愼昌宰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李雲卿 남양유업 전문위원
 金英惠 제일화재 이사장
 李美淑 삼표산업
 鄭在昊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李起雄 열화당 대표
 辛永茂 법무법인 세종 대표
 辛炳讚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朴載蓮 성곡미술관 이사
 李鈴子
 朴海春 서양화가
 金宗學 한국도로공사
 玄智皓 (주)화승R&A 부회장
 金寧慈 (재)예울 명예이사장
 金正宙 (주)NXG 대표이사
 梁汰會 (주)비상교육 대표이사
 丁恩美 블룸앤코 대표
 鄭義宣 현대자동차 부회장
 崔惠玉 회원·자원봉사
 洪誠杓 고려상사(주) 부회장
 崔世勳 다음카카오 대표이사
 朴世昌 금호타이어 부사장
 崔杜準 (주)동남유화 부회장
 李海珍 NAVER 이사회 의장
 金澤辰 (주)엔씨소프트 대표
 李善眞 목금토갤러리 관장
 洋賢財團
 薛允碩 대한광통신 사장

李英純 한국미술협회회원
 朴正遠 재미교포
 金載烈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金仁順 한국고미술자기연구소
 曹在顯 경기도 문화의전당 이사장
 曹榮美 경동소재 대표이사
 金世淵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金兌炫 성신양회(주) 사장
 Joseph Bae KKR Asia 대표
 具本商 LIG 넥스원(주) 부회장
 朴善正 대신제분(주) 전무
 金裕錫 행남자기 대표이사
 咸泳俊 (주)오투기 회장
 金載勳 영풍제약 부사장
 高基瑛 (주)금비 사장
 尹賢慶 동화약품 이사
 韓榮宰 노루홀딩스 회장
 崔仁善 회원
 吳勝敏 동일산업(주) 대표이사 사장
 俞承燾 코리아나 화장품박물관 관장
 李幸旭 전남일보 사장/발행인
 李萬圭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趙希卿 (주)가온소사이어티 대표
 朴宣注 영은미술관 관장
 尹 寬 BlueRun Ventures 대표
 林鍾勳 한미IT(주) 대표이사
 柳智勳 (주)한담 사장
 李濬宇 흥아해운 전무
 楊仁集 (주)진로 대표이사 사장
 尹勝鉉 (주)뉴라이트전자 대표이사
 吳治勳 대한제강 대표이사 사장
 李學俊 서울옥션 대표
 李芝衡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金性南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金京姬 (주)피오나조경 대표이사
 韓惠舟 화정박물관 관장
 柳英芝 유금와당박물관 기획실장
 李胤基 그랜드힐튼호텔 사장
 崔再源 SK부회장
 李甲宰 삼일회계법인 전무
 姜承模 한국석유그룹 부회장
 金斗植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成來恩 영원무역 전무
 張升準 매경미디어그룹 부사장
 李宇成 이테크건설 전무
 張仁宇 선인자동차 대표이사
 朴廷彬 신원 부회장
 具本赫 LS-Nikko 동제련 전무
 禹燦奎 학교재 대표
 李哲雨 롯데쇼핑 총괄사장
 徐東姪 회원
 千碩圭 천일식품 대표
 金東官 한화 큐셀 기획실장
 洪正國 (주)BGF리테일 상무
 陳在旭 하나UBS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
 崔正勳 대보건설(주) 전무
 崔雄善 (주)인팩 대표이사
 朴璟鎭 (주)진주해 대표이사 부사장
 洪正道 중앙미디어네트워크 대표이사 부사장
 沈宗玄 한국가구박물관 부관장
 金侖壽 지리산 문학관 관장
 李柱翰 (주)삼익유니버스 이사
 李常宰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李周成 세아제강 전무이사
 金恩惠 서울도시가스 이사
 許辰秀 SPC(주) 전무
 洪範碩 (주)남양유업 부장
 具本權 (주)LS 차장
 朴載相
 鄭志伊 현대상선 전무
 方正梧 TV조선 상무
 尹普鉉 호림박물관 이사
 金根鎬, 洪元福 회원
 朴俊泳 본음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金建昊 (주)삼양 홀딩스 부장
 南兌勳 국제약품 대표이사 부사장
 洪振碩 (주)남양유업 상무
 曹榮峻 우양산업개발(주) 대표이사
 李承勇 (주)에이티넵파트너스 대표이사 사장
 洪碩杓 고려제강 상무
 李廷龍 가나아트갤러리 대표
 洪進基 마리오아울렛(주) 실장
 具東輝 LS산전(주) 부장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